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5월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미경(태국)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찬 337)

다같이

예수 예수

믿음이 없이는

아름다우신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최준용

다같이

갈라디아서 2:19-21

다같이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사마임찬양대

“변화된 삶을 원할 때”

양명철

내 영혼이 은총 입어(찬 438)

다같이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5월 한 달 동안 한울림교회 비전과 예배당 건축 완공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표를 작성했으니, 자신이 신청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예배에 못오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문의-정주애)
3.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핫라인입니다. Tel. 646-450-8603
4.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5.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6.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 한성욱 -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광경이 떠올려집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 아이는 교회에 이끌려져서 나옵니다. 아직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오직 부모님께서 이끄시기에 그 손길에 의지하여 교회로 나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길은 경험해 보았지만 영원한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매일 묵상하는 성경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누르고 이스라엘 자손을 직접 건져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 하시는데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 하십니다. 또한 마실 것과 먹을 것까지도 세심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강하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몇일 전에는 사역을 하고 일을 하며 운전할 때 구름을 보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저의 온몸을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감싸주시고 친히 갈 길로 인도해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내가 가는 길을 어디로 달려갈지 내가 선택하고 달려온 것 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목적지를 향해 인도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 하시는데 내가 멸망의 길로 가지는 않겠구나 하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정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사람의 열심에만 살아가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저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혹은 갓난아기는 그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교회에 갑니다. 저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항상 출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을 부드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저희의 모습. 부모의 손을 붙잡고 평안함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교회에서 나와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